

자기소개서

소 속		직 위		성 명	
-----	--	-----	--	-----	--

1 공모교장에 지원하며

어린 시절 저에게 학교는 가장 재미있는 곳이었습니다. 매일 교과서 속 새로운 지식을 배우며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의 이야기에 쏙 빨려 들어가 꿈을 꾸다 보면 어느새 하루해가 저물어가는 신기한 세상이었습니다. 해 질 무렵 저를 부르는 부모님의 소리를 들으며 귀가하는 시간은 아쉽게만 느껴졌습니다. 초등학교는 아이들이 만나는 작지만 전부인 세상입니다. 아이들이 온전하게 존중받으며 성장하고 살아가는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며 얻는 보람으로 성취감과 효능감이 충만한 선생님, 학교와 함께 호흡하며 보다 나은 내일을 설계하는 학부모들이 함께 공감하며 성장하는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성장 배경

제가 태어난 곳은 뒤로는 완산칠봉이 병풍처럼 둘러져있고 앞으로는 전주천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공무원이셨던 가정에서 4자매의 맏이로 태어나 동생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동생들,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냇가로 뛰어다니며 놀았고, 아버지가 근무하시는 동사무소에 도시락 심부름을 다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버지는 독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맡에 늘 동화책이 놓여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동화책을 읽으며 아버지를 기다리는 일이 반복되면서 독서는 삶의 일부가 되었고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독서를 통해 다른 세상에 관한 호기심이 생겼고 장래 희망에 대해 다양한 상상과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3 교사로서 성장하기

‘아이들과 나의 존재 이유를 알아 가다’

1995년 9월, OO 지역의 작은 학교에서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친구처럼 편안하고 학생 모두에게 골고루 사랑을 주는 따뜻한 선생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신규 교사로 교무업무를 맡게 되면서 힘든 날도 있었지만 아이들과 함께 독서, 노래, 체육활동 등을 하면서 고단함을 날려버릴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된 후 업무를 하면서 겪은 상처가 아이들과의 수업으로 해소되고 아이들의 성장으로 위안을 얻는 경험을 하면서, 아이들이 바로 교사로서의 나를 만드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사는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조력자임을 깨닫다’

OO초 근무 시 리코더 4중주 합주를 지도했습니다. 50여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4성부의 리코더 합주를 지도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커다란 베이스 리코더와 씨름하며 주법을 익히면서 가르쳤습니다. 최선을 다해 지도한 결과 지역 예능 경연대회에서 수상을 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때 더 좋은 성적을 거둔 선배와의 대화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리코더를 전혀 연주할 줄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교사가 잘 아는 것과 아이들을 잘 가르친다는 것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여러 날을 고민한 결과, 교사의 가장 큰 본분은 아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수업 연구로 성장하다’

OO초는 독서교육 시범학교, ICT활용 시범학교 등을 운영했습니다. 당시 저 경력 교사였던 저는 자원하여 연구학교 시범수업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독서토론 연구수업은 독서 활동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실증적으로 확인해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1분 말하기 과정을 통해 아이들의 발표 능력을 기르고, 근거를 찾아 논리적으로 의견을 발표 하도록 꾸준히 지도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간단하게 말하기도 어려워하던 아이들은 어느새 책 속의 인물이 되어 자신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내세우며 활발하게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수업 이외의 시간에도 책을 읽는 아이들의 모습이 어린 시절 아버지가 사주시던 동화책 속에 빠져 미래를 상상하던 저의 모습과 오버랩되기도 했습니다. 선배 교사들과 매일 저녁 수업 모형을 구안하고 치열하게 사전 사후 협의를 하던 연구의 시간은 저를 진정한 교사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삶의 시야를 넓히기 위한 외국어 교육에 힘쓰다’

초등학교 때 다른 나라의 동화를 읽으며 저는 외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열망과 함께 해외에서의 삶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학창 시절 영어에 관심이 많았고 대학에 다닐 때는 OO어를 따로 공부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와 갓 수교를 맺은 OO은 미래 사회의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직에 들어온 후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교원을 파견하는 제도가 있음을 알게 되어 OO어와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결과 2007년부터 3년간 OO 내 한국학교에 파견교사로 근무하게 되어 재외국민을 교육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귀국 후에는 OO의 OO초에 발령을 받아 영어교육과 연구학교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OO초는 영어교육 시범학교였는데 영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해 수업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해외에서 생활한 경험은 의사소통 능력 신장이 외국어 교육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이를 위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원격 영어연수 및 해외 심화연수(2012년)를 이수하였고, 영어 관련 자생클럽 등을 조직하여 활동하는 한편 전북교육청 영어 수업자료 개발 위원 및 다양한 영어교육 관련 위원(2012~2021)으로 활동했습니다. 또한 OO에서의 근무 경험을 살려 창체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기초회화 중심의 OO어를 가르쳤고, OO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2박 3일 ‘OO 000 OO어 캠프’를 기획하고 운영했습니다(2012년). 또한 전북교육청 다문화교육 지도자료 개발위원(2012~2013년)으로 활동하며 교재를 개발하였고 OO 이중언어 말하기대회 심사위원(2015~2016년)으로 활동하였으며, 다꿈사랑방 학교의 정착을 위한 컨설팅 위원으로도 활동하였습니다.

4 관리자로서 리더십 갖추기

‘재외국민 교육기관에서 학교 운영 리더십을 배우다’

2007년 교육부 파견교사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OO OO한국학교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초등, 중등, 고등과정 1~12학년까지 아우른 초중등 학교였는데 다양한 전공과 성향을 가진 교사들이 함께 생활했습니다. 한국인 및 OO 원어민 교사, 현지 교직원 등 학교 근무 인원이 많았는데 교육부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교장과 파견교사 단 둘뿐이었습니다. 예산은 부족했고 재외 한국학교의 운영이 정착되지 않아 혼란이 지속되었습니다.

저는 본국과의 연락, OO 정부 및 재단과의 소통과 협력, 교사 채용, 교무 연구 업무 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간관리자로서 역량을 키워갔습니다. 학교가 문제상황에 처할 때마다 중간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했는데 문제해결의 열쇠는 늘 ‘평상시 소통’에 있었습니다.

OO 현지 직원들과 우리나라 전국에서 모인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전라북도 교원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했습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이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온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글로벌 역량을 기르는 교육에 집중했습니다.

‘교감으로 교사들과 함께 성장하다’

2015년 3월 OO OO초 교감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특히 넉넉한 품을 가진 교장선생님과 근무하며 학교장의 리더십과 철학이 교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감이었지만 교사들과 함께 성장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교사들과 함께 독서토론을 지속했고 수업을 위한 연구를 추진했습니다. 학교 교직원의 철학과 생각을 모아 학교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이에 기초하여 민주적이고 따뜻한 학교문화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실천을 기반으로 학교 특색을 가진 어울림학교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OO 지역 교감단 독서토론에 월 1회 이상 꾸준히 참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OO교육청 정책토론회(2015년)에 멘토로 참가하여 토론을 이끌었습니다.

교사들이 교육과정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교사들과 소통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문화 혁신 퍼실리테이터 연수(2018년)’를 시작으로 에듀테크 직무연수와 IB프로그램과 연계한 수업혁신 연수(2024년) 등에 참여하여 역량을 쌓았습니다. OO 성장평가 및 참학력 지원단 활동(2017~2019년)을 지속했으며, 2022. 개정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학교자율시간 구성 연수’에 참여하여 실천을 통한 전문성 신장에 집중하였습니다.

5 존중받고 존중하는 성숙한 학교

학교는 아이들의 온전한 보살핌과 성장을 돕는 곳이어야 합니다. 학교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가치를 위해 노력하고 소통하며 공동의 목표를 가꾸어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곳이어야 하고 그 중심에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교사들의 안전보장과 전문성이 없이는 아이들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교장으로서 교사들과 학부모들 곁으로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들과 같은 시선과 눈높이에서 학교와 아이들을 바라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사들 또한 아이들과 눈 맞추며 한 걸음씩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부안남초등학교는 최고의 자연환경 속에서 지역사회와 총동창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는 성장의 잠재력이 큰 학교입니다. 교사로서 실천했던 다양한 경험과 교감으로서 노력하고 실천했던 협력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부안남초등학교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와 부안남초등학교가 인연을 맺게 된다면 학교의 강점은 극대화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본질적이고 지속적인 방향으로 학교가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